

봄내음 물씬~ 무주서 놀아요

무주군 '마을로 가는 봄 축제'가 5월 5일부터 6월 5일까지 펼쳐진다. '봄내음 물씬 풍기는 무주에서 놀아요!'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5월 5일 오후 2시 설천면 호룡마을에서 막을 올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의 소리 '장'과 국산도, 색소폰, 오카리나 합주 등 주민들이 준비한 축하행사와 더불어 떡메치기 등 체험행사를 즐기며 마을 별 축제 일정과 프로그램을 소개받을 수 있다.



마을로 가는 봄 축제
5일 ~ 내달 5일 개최
먹거리 등 체험 다채

봄 축제가 진행되는 마을은 무풍면 승지마을과 설천면 호룡, 대평마을, 적상면 치목, 괴목, 초리, 내창마을, 안성면 두문마을과 명천, 죽장마을 등 10개 마을로, 무풍면 승지마을과 설천면 호룡마을, 적상면 내창, 괴목마을, 안성면 명천, 죽장마을은 상시, 설천면 대평마을과 적상면 치목마을은 주말에만 운영을 한다.

체취와 꽃마차 투어, 팻목타기 등의 체험거리와 어죽과 비빔밥 등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강 너머 들길로 트레킹'을 준비하고 있는 대평마을에서는 마을·계곡 트레킹을 비롯해 곤충체험과 식용곤충으로 음식 만들기를 체험해볼 수 있다.

안성면 두문마을은 5월 7일과 6월 3, 4, 5일, 적상면 초리마을은 5월 28일과 29일, 6월 4일과 5일에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골밭놀이 축제'를 준비 중인 무풍면 승지마을에서는 건강음식 만들기과 마을농장 둘러보기, 캠프파이어와 함께 야생 웰빙 음식을 즐길 수 있으며, 설천면에서는 '고사리 꽃다발'을 주제로 고사리

적상면 치목마을은 삼베짜기 체험과 새장 야채 채취를 통한 '어머니와 삼베 추억여행'을 준비하

고 있으며 괴목마을에서는 누구라도 '나물 캐는 처녀'가 되어 산나물 채취와 기능성 고추장 만들기 등을 즐길 수 있다.

초리마을에서는 '달달치척 마을 여행'을 테마로 최우수수떡 체험과 마을 8경 소풍을 즐기고 휘 갈 국수를 맛볼 수 있으며, 내창마을에서는 밥상머리 예체합과 피자·치즈만들기, 원시농경 쟁기질 등을 하며 '느림으로 치유하는 하늘 길 정원'을 만끽할 수 있다.

안성면 두문마을에서는 '봄 향기 속 옛 정취를 안고서' 서당체험과 산나물·미나리채취, 낙화놀이와 어머니 밥상을, 명천마을에서는 '술향기 힐링체험'을 통해 피톤치드 체험과 두부 만들기, 작은 음악회를 즐겨 볼 수 있다.

죽장마을은 '옛 밥 다시 찾기' 오분도 밥 체험을 테마로 떡 만들기과 술 바닷길 산책도 즐겨볼 수 있다.

군 김오수 농촌관광 담당은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가 준비한 마을로 가는 봄 축제는 산골무주, 청정무주, 정감 넘치는 무주의 진면목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문외는 군청 농촌관광 담당(063-320-2767)으로 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향우공무원과 고향발전 힘 모아

지역발전 네트워크 구축

완주군과 완주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역대 최초로 완주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한자리에 모여 유대강화 및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가 예산 확보 등 지역발전을 위한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기로 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한 주요 간부 공무원들과 완주군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28명은 29일 세종시에서 간담회를 갖고, 다함께 열거하는 으뜸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간담회에 참석한 향우 공무원들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식품수산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 12개 부처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국가 예산 및 주요정책 수립에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등 지역 발전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향우 공무원들이 매우 자랑스럽고, 앞으로 고향발전을 위해 적극 앞장서주길 바란다"며, 현재 부처별 예산편성 단계로 완주군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군, 추가경정예산안 3140억원 편성

무주군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본예산 대비 219억4천8백여만원이 증가(7.5%)한 3천140억1천2백여만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군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무주군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부문이 2천601억 5천3백여만원으로 187억 7천5백여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 부문은 31억 7천3백여만원이 증가한 448억 5천9백여만원이다.

세입부문에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등의 추가 세입을 반영했으며, 세출부문은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농업 관광분야, 상수도 등 계속사업에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

은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관련 사업(11건 / 12억여 원)과 토양개량제지원 등 농업부문 주요사업(34건 / 44억 6천 7백만 원),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등 문화·관광 부문 주요사업(5건 / 20억여 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대규모 SOC사업(8건 / 103억 9천만 원) 등이다.

군 최영관 실장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은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와 군민소득창출을 위한 기반조성, 기초생활시설 운영 등 국정 각 부문별 필수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라며 "무주군 6백여 공직자들은 이를 기반으로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실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2년 연속 전국 행복한 마을 콘테스트 수상

진안 원연장 꽃잔디축제 성황리 마쳐

관람객 2만여명 다녀가

진안군 진안읍 원연장마을 광장 및 꽃잔디 봉산에서 개최된 '제8회 진안 원연장 꽃잔디축제'가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에 방문한 약 2만여명의

관람객은 분홍빛 물결이 일렁이는 꽃잔디 행사장에서 봄기운을 듬뿍 담아갈 수 있었다.

이번 축제는 2년 연속 전국 행복한 마을 콘테스트를 수상한 원연장마을에서 개최하여 마을자원과 꽃잔디 동산을 두루 활용해 다양한 체험과 프

로그램을 마련하였다.

특히 전북대학생을 대상으로 원연장 축제 기획 발표 콘테스트를 개최하였고 시상식이 꽃잔디축제 개막식 때 진행되었으며 70여명의 재학생들이 축제기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첫째 날 오전, 꽃에이드 건배제창과 함께 진행된 개막식을 시작으로 꽃잔디 음악회, 보물찾기, 사진 전시 등이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새싹기 전통의식인 태치기, 투호 등 전통놀이와 계란꾸러미 짚풀공예, 꽃잔디 화분만들기, 소원목걸이만들기, 소원달기 등 체험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축제기간 분홍색 옷이나 스카프 착용하면 농가레스토랑 꽃잔디밥상 천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여 행사장 내 분홍색 옷을 입고 방문한 관람객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꽃잔디밥상 주민들이 직접 키워낸 농산물로 식재료를 사용, 믿을 수 있는 밥상 제공으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정비

16일까지 변경·해제계획 공고

진안군은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의 정비를 위해 5월 2일부터 16일까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계획안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변경·해제 계획안은 작년 12월에 법무부지정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계획이 발표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비 기준에 따라 관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마련했다.

변경·해제계획안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3,668ha의 면적 중 163ha가 진흥구역에서 해제되고, 210ha는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등 총 373ha 정도가 규제완화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로 인해 3ha 이하로

남은 자투리 지역과, 진흥구역 최초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목 상 농지가 아닌 임야나 잡종지 등이 해당된다.

또한 3~5ha의 자투리 지역과 경지 정리 사이·외곽 5ha 이하 미경지 정리지역 등 보전가치가 낮은 진흥구역은 보호구역으로 전환해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특히 이번 농업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미이산 도립공원 일대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대상지 등이 해제대상에 포함되어 미이산일대 관광개발 사업은 물론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의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의 최종 변경·해제 고시는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반영한 변경·해제 계획안이 5월 20일까지 전라북도에 제출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6월말까지는 이루어질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국립돌리사

장수군, 국·도비 60억원 확보

장수군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도비 60억원을 확보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중앙 및 도 공모사업 대상은 총 46건 980억원의 사업으로 4월 20일 현재 과수유통시설현대화사업, 한국형전통숙박시설 조성 등 13건에 60억원을 확보했다.

장수군은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해당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주요사업들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설명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군은 각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농촌프로젝트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33건 920억 규모의 사업을 확보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한누리전당 수영장

어린이날 연휴 무료개방

장수군은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월 5일과 6일 양일간 장수한누리전당 수영장을 무료 개방한다.

이날 6세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는 누구나 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 1인은 이용요금의 5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장수군은 수영장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영강사 2명, 안전요원 2명, 청원경찰 2명, 환경요원 2명 등 8명을 배치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한누리전당 체육시설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주군, 5월 ~ 8일까지 휴양·관람시설 무료입장

완주군이 5월 5일부터 8일까지 5일의 연휴기간 동안 주요 휴양 및 관람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

지난 29일 완주군은 다음달 6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어린이날(5일)부터 어버이날(8일)까지 나흘간 연휴가 이어짐에 따라 주요 시설의 무료 입장 및 주차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산 자연휴양림은 4일 동안 입장료 2000원과 주차료를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완주군은 연휴 기간 동안 삼례문화예술촌(입장료 2000원)과 대한민국 스포츠박물관(입장료 2000원)도 무료로 개방한다.

이와 함께 5일부터 7일까지 대둔산 도립공원의 주차료(승용차 2000원, 경차 1000원)도 면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가 소비진작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연휴를 실시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완주군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고산 휴양림(290-2731), 대둔산공원(290-2741), 삼례문화예술촌(290-2611), 스포츠박물관(290-3841) 등으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군, 내일 민방위 기본교육

진안군은 2016년 민방위 기본교육을 진안문화회집 2층 마이홀에서 5월 3일과 4일 2일간에 걸쳐 실시한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일상에서의 안전의식 생활화와 역량제고 등에 그 목적이 있다. 이번 교육은 20세~40세의 남성 중 민방위 1~4년차 지역 및 직장대원과 지역민방위대장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통일안보, 교통안전, 응급처치, 화생방, 심폐소생술 등 민방위대원의 임무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로 구성되어 4시간을 실시한다.

교육홍지서는 27일까지 교부했으며, 통지서가 없더라도 민방위 홈페이지(국가재난정보센터)에서 교육시간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상반기 교육을 받지 못하는 1~4년차 대원은 연 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 진행되는 보충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